

- 10월은 목주 기도 드리는 달 -

◎ 목주 기도의 기원

□ 고대에는 신에게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로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다. 가톨릭 신자들도 기도 대신 장미꽃을 하느님께 바치곤 하였다. 박해 시대 사자의 먹이로 콜로세움에 끌려가던 신자들은 장미꽃으로 만든 관을 썼다. 박해를 피한 신자들은 순교자들이 썼던 장미관을 한 데 모아 꽃송이 하나마다 기도를 바쳤다고 한다.

□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들은 작은 돌멩이나 곡식 낱알을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면서 기도의 횟수를 세곤 하였다. 죽은 자들을 위해 시편 50편이나 100편을 외웠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시편 대신 주님의 기도를 그만큼 바쳤다.

□ 목주 기도의 형식이 완성된 것은 중세이다. 중세 수도자들은 매일 성무일도를 바쳤는데, 150편의 시편을 빠짐없이 바치기 위해 숫자를 헤아리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수도원 근처의 교우들이 이를 본받아 주님의 기도를 150번씩 바치다가 성모 신심이 깊어지면서 현재의 성모송을 바치는 목주 기도로 발전하였다.

□ 200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서 『동정 마리아의 목주기도』를 발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목주 기도의 해’로 선포하였다.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관상하고 복음의 핵심에 다가가는 데 목주기도가 매우 훌륭한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더욱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되도록 기존의 세 가지 신비(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나자렛 생활에 이어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덧붙였다.

◎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꽃다발 ‘목주 기도’

□ 13세기 프랑스의 알비파²⁾ 신자들이 툴루즈 지방을 침략하자, 성 도미니코³⁾는 신자들에게 목주 기도를 권장하였다. 이때 초대 교회의 신심과 연결된 장미 꽃다발, ‘로사리오’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 목주를 ‘로사리오(Rosarium)’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사리오가 장미 꽃다발(花冠)을 뜻하기 때

문이다. 목주알을 열 개씩, 보통 다섯 마디로 엮어 열핏 불교의 염주와 비슷해 보이지만, 염주와 무관하다.

□ 목주 기도는 소리 기도와 마음 기도로 되어 있다. 소리 기도로 성모송 열 번, 주님의 기도 및 영광송 각 한 번씩 한다. 이것이 1단(端)이며 한 께미는 5단 또는 15단으로 이룬다. 그리고 마음 기도로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네 신비로 되어 있으며, 각 신비는 5개의 묵상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환희의 신비’는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빛의 신비’는 예수의 공생활을, ‘고통의 신비’는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 희생, ‘영광의 신비’는 예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성모 승천을 묵상한다.

□ 목주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바칠 수 있지만 미사 중에는 드리지 않는다.

◎ 2009년 10월 7일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우리나라 최초의 성모 성자인 남양 성모 성지에서는 10월 7일 오전 11시, 주한 교황 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와 최덕기 주교의 공동 집전으로 성지 봉헌 기념 미사를 드린다. 오후 2시에 축하 음악회, 성체 강복이 이어진다.(문의: 남양 성모 성지 ☎ 031-356-5880).

□ 이날 로마의 성모 대성전⁴⁾과 특별한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당 및 순례지인 대구 성모당, 감곡 성당, 충주 교현동 성모당, 청주 내덕동 성당, 청주 복대동 성당, 청주 성모성심 성당, 청주 지현동 성당, 보은 성당, 진천 성당을 방문하여 고해성사 및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전례에 참여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목주 기도 성월에 관련된 자료들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10월 목주 기도 성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 가톨릭에서 10월은 전교의 달이기도 하다. 전교란 복음을 널리 전한다는 말이다. 1926년 비오 11세 교황은 매년 10월의 끝에서 둘째 주

일을 ‘전교주일’(Mission Sunday)로 정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와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특별헌금’은 교황청 전교회⁵⁾로 보내져 선교 지역의 교회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돕는데 쓰인다. 한국 천주교회는 1970년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하여 전교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목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9월 27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80.00			
교 무 금 : \$ 10.00	180(10)		
감 사 금 : \$ 50.00	184(20)	188(10)	
	226(20)		
성전건립 : \$			
(성모동산 누계 : \$ 4830.00)			
합 계 : \$ 840.00			

알려 드립니다.

이번 자연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마음 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당 소 식

◎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이자 전교의 달입니다.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개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시기를 권합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10월을 묵주의 성월로 정하고 전 세계가 죄와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한 영적 무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특히 개인과 가정의 성화는 물론,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시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1970년부터 한국 주교회의는 신앙인의 복음 전파 사명을 한층 더 일깨워 주고 그리스도의 장엄한 명령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 (교회헌장 17항) 10월을 「전교의 달」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 10월 행사 일정

▷ 10월 04일(첫째 주일)- 미사 오후 6시 & 한가위 잔치 - 한가위 미사를 드립니다.

(런던 한인성당 :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미사집전)

▷ 10월 11일(둘째 주일)- 사목회의 (주관 :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 사목위원, 구역장 및 단체장도 참석 바랍니다.

▷ 10월 18일(셋째 주일)- 이민자의 날 (미사: 해밀턴 주교좌 성당) -빠짐없이 오세요.

◎ 10월 울드레아 모임 안내

일시 : 10월 9일 (금) 오후 4시

장소 : 노재현 형제 보습학원

문의 : 김현태 간사 ☎ 519 279 4005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막시모 형제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 519 279 4005

◎ 10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2구역입니다.

▷ 11월 : 청소년부

▷ 12월 : 사목회의

*잊지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본당 승격 창립 축하미사 후 이어진 김선호 루카 주임신부님 송별미사로 인해 저희공동체 많은 신자들께서 그 충격과 우려로 많이 혼란스러우시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송별미사 주보 '본당신부 단상'에서 김루카 신부님께서도 밝히셨듯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 대답하고 따르는 것이 사제의 길이듯,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이 주님의 뜻이고 그에 따른 관할 교구청 주교님의 지시라면 우리 공동체 또한 그에 따라 순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평신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오늘 밤 김루카 신부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주교님 면담에서 해밀턴 성 유대철 성당 주임신부님이신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께 새 본당 주임사제가 오실 때 까지 임시로 저희 본당 성사와 사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임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명을 받으신

고 안드레아 신부님의 주관으로 타 본당 한인사제분들의 협조와 더불어 주일미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본당 발전을 위한 사목회의는 고 안드레아 신부님의 주관으로 가집니다.

지난 송별미사에서 나누어 드린 해밀턴 교구장이신 토너스 주교님의 '저희 공동체 신자들에게 보내신 위로와 격려의 공개서한'에서도 밝히셨듯, 토너스 주교님의 저희 공동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려가 있으셨기에 그나마 저희 K-W 한인천주교회가 본당 창립축하미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지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당 사제의 인사권은 교구청의 권한이고 그 조치에 따른 해답은 오로지 사제 개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동체 평신도는 우리 권한 밖의 조치와 사유에 대해 아는 바도 없을 뿐더러, 또 알아 본들 무얼 어찌 하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막 본당 공동체로 거듭 난 저희 K-W한인천주교회의 앞날이며 현재 상황에 따른 방법을 모색하고 도모하여 하나로 뭉쳐 극복하고 거듭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갑자기 저희 공동체에 막힌 이 시련은 분명 하느님의 또 다른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으로써 힘을 내어 모를지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보다 더욱 튼실한 공동체를 가꾸어 나갑시다.

2009년 9월 30일

K-W 한인천주교회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드림.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2009-41호

2009. 10. 4.

한가위 미사

해설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성가			
입당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봉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176)	믿음 소망 사랑		
퇴장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 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 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솔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독서			
10월 4일	윤명원	윤명희	
10월 11일	장명길	장용경	
봉헌			
10월 4일	노동원	노성은	
10월 11일	윤명원	윤명희	

복사			
10월 4일	류지현	김건우	
10월 11일	안아림	노승범	

친교			
10월 4일	성모회와 워털루 4구역 협조		
10월 11일	성모회와 협조		